



제2377호 2019년 10월 6일 **연중 제27주일 (군인 주일)**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자라나는 신앙의 씨앗

부대 안을 걷고 있노라면 지나가는 친구들이 웃으며 인사를 합니다. "아멘!", "알렐루야!"

그 인사에 저도 "그래~!! 좋은 하루~~!!"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그러다 친구들이 하는 행군에 군복을 입고 참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찬미 예수님!!" 인사를 해야 하는데 잠깐의 침묵 후에 친구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신부님, 군인이셨어요?" 저도 "어쩌다 보니 두 번 왔네."라고 대답하고 함께 걷습니다. 어색한 침묵의 시간이 잠시 흘러갑니다.

침묵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친구들의 고백이 쏟아집니다. 중·고등학교 때 성당에 나가지 않다가 입대하고 성당에 다시 나온다는 친구, 복사단 학생회를 했지만 대학을 가면서 성당을 잊고 살았다

는 친구, 세례를 받은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친구, 많은 고백이 쏟아집니다. 질문도 같이 쏟아집니다. 세례받는 법을 묻는 친구, 왜 군대 두 번 왔는지 묻는 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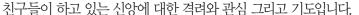
많은 고백과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친구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가 좋은 것 같습니다. 성당 잘 다니고 싶습니다." 친구들의 공통적인 말에 저는 그저 웃음으로 화답할 뿐입니다.

이런 친구들과의 삶을 떠올리면서 오늘 복음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 이 친구들의 믿음이 어쩌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겨자씨한 알만 한 믿음이구나.'

너무나 작은 크기라 그냥 지나치면 있는지도 모를 그 겨자씨에 비유된 믿음. 결국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는지도 몰랐던 그 믿음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 안에서는 싹을 틔우고 자라고 있다는 것을 알 듯합니다. 조심스럽게 자라는 친구들의 믿음을 바라보면 성당에 와서 누구보다 큰 소리로 성가를 부르고 지루한 강론 시간에 눈은 감고 있어도 마음은 열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는 조금 부끄러운 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하느님을 느끼고 하느님을 만나는 친구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부끄러움을 고백합니다. 어쩌면 저 뿐만이 아닌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많은 이들이 느낄 수 있는 부끄러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우리가 처음 하느님을 만나고 기뻐했던 그 순수함을 잠시 잊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살았던 그 순수함을 우리 친구들은 이제 막 느끼기 시작합니다. 군인 주일을 맞이하여 군인 친구들을 마음에 한 번 떠올려 보았다면, 우리의 순수함을 잊고 살았다는 부끄러움을 느꼈다면, 작은 싹을 조심스럽게 틔우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을 떠나 군이라는 곳에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신앙을 키우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것은 달달한 초코파이와 음료수가 아닌





이슬기 안토니오 신부 군종(해군교육사성당)

주일 집레

입 당 송 주님, 모든 것이 당신의 권능 안에 있어, 당신 뜻을 거스를 자 없나이다. 당신이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당신은 만물의 주님이시옵니다.

본 기 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저희 공로와 소망보다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어, 양심의 가책을 받은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감히 청하지 못하는 은혜도 내려 주소서.

제 1 독 서 하바 1.2-3; 2.2-4

화 답 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 2 독 서 2티모 1,6-8.13-14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바로 이 말씀이 너희에게 전해진 복음이다. ◎

복 음 루카 17.5-10

영성체송 당신을 바라는 이에게, 당신을 찾는 영혼에게 주님은 좋으신 분.



이곳은 **생동감**이 넘치는 생명터입니다!

노미진 엘리사벳 • 생명터 원장

Q. 생명터는 어떤 곳인가요?

✔. 우리 교구에서 운영하는 생명터는 출산 후 미혼모와 자녀로 구성된 미혼모자 가족이 일정 기간 공동생활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아동 양육, 퇴소 후 자립을 위한 학업 및 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미혼모(한부모가족복지)시설입니다. 12세대 24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규모이며, 입소기간은 2년입니다.

Q. 생명터는 어떻게 처음 만들어졌나요?

✔. 생명터는 2004년 마산교구 가톨릭여성협의회 총회에서 생명존중과 낙태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미혼모시설 설치운영에 대해 의결을 거친 후 2004년 2월 26일에 일반주택 1동 매입(마산회원구 회원2동)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가족 5세대를 보호하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모은 여성협의회 바자회수익금으로 매입한 주택으로 생명터가 시작되었고, 2010년 9월에는 현위치(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로 신축이전하였습니다. 2004년 9월부터 운영되어 올해 15주년을 맞이했습니다.

Q. 생명터에서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고, 15년 동안 자립을 지원한 미혼 엄마들은 몇 명이나 되나요?

✔. 생명터에는 대부분이 가족이나 주변 지인 등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미혼모가 입소합니다. 그들에게 무료 숙식은 물론 아기 양육을 위한 교육과 물품 지원, 심리 정서를 위한 프로그램, 자립을 위한 학업·자격취득 직업훈련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합니다. 생명터 맘들은 2년이라는 약속된 시간 동안 아기와의 자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합니다.

생명터는 개원 후 15년간 총 11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초기에 생명터에서 지낸 아기

들은 벌써 중3^{^^}. 해마다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받는 아동에게 가방을 선물하고 있는데 올해는 가장 많은 9명이었답니다.

Q. 생명터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나요?

♣. 창원시로부터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후원금과 기획사업 공모 등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교구 내 본당(반송성당·완월동성당·칠원성당·회원동성당·삼계성당·호계성당·용원성당·진동성당 등) 복지분과에서 관심을 갖고 후원을 해주고 계시며, 교우분들도 찾아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Q. 15주년을 맞이한 생명터에 축하할 일이 있었다구요?

✔. 지난 9월 6일 서울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이번 수상으로 함께 생활하는 미혼 엄마들과 종사자들에게 큰 힘과 격려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동행해주신 법인 관계자분들과 많은 후원자, 봉사자 분들이 계셨기에 생명터가 미혼 엄마들이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머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Q. 마지막으로 생명터의 각오가 있다면?

4. 생명은 언제나 신비로움을 선물합니다.

생명터가 문을 연 지 열다섯 해가 지나고 보니 이제 각자의 위치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아기들과 엄마들이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동안 지켜낸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은 그 어떤 선물보다도 큰 기쁨임을 알기에, 앞으로의 15년도… 생명과 동행하는 생명터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전교의 달 📆 가장 위대한 임무

김종훈 엠마누엘 신부 ● 광주 가톨릭대학교 교수

"가장 위대한 임무"(Maximum Illud)는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교황 교서로서, 올해 반포 100주년을 맞이한다. 이를 기념하여 교황 프란치스코는 올해 전교의 달을 '세례 받고 파견된 이들: 세상 안에서 선교하는 그리스도 교회'(Baptized and Sent: The Church of Christ on Mission in the World)라는 주제로 현대에 적합한 선교 활동과 정신을 새롭게 다잡고자 한다.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가장 위대한 임무"를 시작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선교 교령"(Ad Gentes)과 교황 바오로 6세의 "복음 선교"(Evangelii Nuntiandi)를 거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교회의 선교 사명"(Redemptoris Missio)에서 확인한 "교회는 본성적으로 선교적이다"라는 명제는 교회의 선교에 관한 자의식을 일관되게 표명 하고 있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복음의 기쁨"(Evangelii Gaudium)에서 "저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교 선 택'을 꿈꿉니다. 교회의 관습과 행동 양식, 시간과 일정, 언어와 모든 교회 구조가 자기 보전보다는 오늘날 세 계의 복음화를 위한 적절한 경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고 재차 확인한다.

교황은 이번 〈특별 전교의 달〉 담화에서 모든 신앙인이 하느님 사랑의 다그침에 귀 기울이는 하느님의 사람 으로 거듭 태어나, 열린 마음과 자비의 '선교적 회심'을 우선한 '선교사'의 열정을 가질 것을 강조한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만민 선교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회개 여정에 자리 잡고 있음을 적시한 교황은 모든 형태의 국수주의와 민족 중심주의의 척결, 그리고 폐쇄적 소속감을 주는 배타주의적 개념으로부 터의 해방을 우선적으로 주문한다.

역사적 배경

회개의 여정 속에 언급된 모든 폐쇄적 국수주의와 민족 중심주의 척결이라는 현 교황 프란치스코의 주문은 100년 전 교황 베네딕토 15세가 반포한 "가장 위대한 임무"의 역사적 맥락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당시 교회 는 여전히 식민 시대의 아픔과 유럽 문화에 대한 우월주의, 그리고 지역 확장주의와 국수주의의 그림자가 깊 게 드리워져 있었다. 이에 대해 교회는 선교 사업에 대한 역사적 부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선포한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바티칸은 선교 활동에 관해 전반적으로 새롭게 점검할 필요가 생겼음을 인지한다. 일례 로, 중국에 파견된 벨기에 선교사 프레데릭 빈센트 레베(Frederic-Vincent Lebbe)는 중국에서 프랑스 선교 주교들 대신 현지인 주교들을 임명할 것을 촉구하였다. 레베는 스스로 중국 언어와 문화에 동화되고자 하였다. 더욱 이 그는 "중국을 중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은 그리스도에게로"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여러 외국 선교사들이 자 국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중국 가톨릭교회를 통제하는 것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레베의 선교에 관한 성찰은 당시 교회의 전반적인 회개의 여정을 이끌었다.

이 회개의 여정은 지난 과거, 선교를 핑계로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그리고 아시아에 드리워진 유럽의 식민 권력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개된 국수주의의 위험에까지 확장된다.

"가장 위대한 임무"는 선교에 관한 첫 번째 교황 교서이다. 이 서한이 발표된 때는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 사이의 '긴장과 갈등의 씨앗이 배태되는 어두운 침묵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가톨릭교회는 정치 사회 문화적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발견되는 교회의 순수한 선교 열정의 저하를 인지한다. 교황은 이 교서에서 역사의 과오 안에 자리 잡은 선교 활동과는 사뭇 다른 선교 사명의 본질을 재확인하고, 열정적인 선교 의지와 참여를 충만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여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한다.

교서의 내용

베네딕토 교황은 선교 활동의 촉진을 위해 복음서의 말씀에 비추어, 정도를 벗어난 선교의 역사를 되돌 아본다. 선교 역사에서 불행히도 발생한 희생과 여전히 남아있는 아픔을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많은 선교사의 긍정적이고 헌신적인 증언을 확인한다.

교황 교서는 우선적으로 선교 활동의 첫 번째 책임자인 주교들과 감독들, 구체적으로는 선교지에 임명된 유럽 출신의 주교들에게 향한다. 교황은 선교지의 주교들이 이기심을 버리고, 영성적으로 "자기 선교지의 영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교황은 주교들이 "하느님의 나라를 확대하고자 하는 열정보다는 자기 나라의 영향력을 넓히고자 하는 욕망"을 경계해야 하며, "금전욕에 불타는 이"는 결코 선교사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한다.

교서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선교사의 양성을 강조하는데, 해당 민족의 언어 습득과 겸손과 순명, 정결에 대한 모범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 하느님과의 일치에 노력하고 열정을 잃지 않는 선교사 양성에 힘써 주기를 독려한다.

그리고 대단히 특별하게도 교황은 선교지의 비신자들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잊지 말 것을 당부한다.

마지막으로 교황은 보편 교회뿐 아니라, 지역 교회 차원의 전교 사업의 지속적인 관심과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기구의 설립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 교서를 마친다.

현재적 적용과 실천

교황 베네딕토 15세의 "가장 위대한 임무"를 되새기는 현대 가톨릭교회는 네 가지 지평에서 선교활동을 새롭게 성찰하고, 그 적용과 실천을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으로부터 출발한다. 파스카 신비를 체현하는 성찬례,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 전인적인 공동의 기도 등을 통한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가장 우선적인 선 교의 알파요 오메가이다.

둘째, 교회의 선교는 세상을 관통하는 교회의 표현인 선교 성인들의 증언들, 순교자들, 신앙 고백자들의 증언 등 선교의 증거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선교의 증거들은 미래 선교의 밑거름이자, 선교의 방향을 가리키는 지시계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선교사 양성의 중요성이다. 선교사는 주님의 선물이자 '신앙의 선물'(Fidei Donum)로서, 인류 구원에 자비로이 헌신하신 그리스도의 열정에 참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선교는 사랑의 나눔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다. 선교는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과 가난한 이들과의 생생한 연대와 하느님 사랑을 위한 희생이 수반되는 사랑과 구워의 행위이다.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0월 13일(주일) 장소: 장승포성당

교구 성폭력 피해 접수처

우편: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성폭력 피해 접수처 앞 (우 51727)

E-mail: solace@cathms.or.kr 문의: 055 · 249 · 7002~3

유사종교 상담 및 피해사례 접수처

E-mail: samok1@cathms.or.kr 문의: 사목국 055 · 242 · 6776

▶ 교구/본당

재무평의회

일시: 10월 8일(화) 10:00

장소: 교구청

소공동체장 연수 - 창원지구

일시: 10월 10일(목) 13: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사목국 055 · 249 · 7022~3

예비신학생, 여성소자 모임

일시: 10월 13일(주일) 10:30

장소: 교구청

문의: 성소국 055·249·7061

51차 선택주말

일시: 10월 25일(금) 20:00~27일(주일)

15:00 파견미사

장소: 수정 트라피스트 수녀원 대상: 성직자, 수도자, 종교무관, 2·30대 미혼 남여 누구나

참가비: 9만 원

신청마감: 10월 7일(월) 문의: 010 · 6490 · 6077

진주지구 정찬문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일시: 10월 25일(금) 19:30 장소: 진주교육대학교 대강당 지휘: 이승엽, 반주: 윤정은 *전 좌석 무료 입장입니다

▶ 위원회/기관/단체

신앙대학 심화과정

일시: 10월 12일(토) 13:00

장소: 교구청

문의: 사목국 055·249·7022~3

정의평화위원회 사회교리 – 미사와 특강

일시: 10월 14일(월) 19:30

장소: 사파동성당

주제: 노동현장의 법률적 이해

강사: 김두현 변호사

문의: 정의평화위원회 055·261·8201

가톨릭여성회관 개관 43주년 기념 민들레축제

일시: 10월 16일(수) 15:00 (봉사자 감사의 날) 장소: 마산아리랑관광호텔 무궁화홀

일시: 10월 18일(금) 11:00~23:00 (민들레주점)

문의: 가톨릭여성회관 055·255·5080

2019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다락방) 전국대피정 '이 빛나는 길'(메세지 347번)

일시: 10월 21일(월) 09:00~17:00

장소: 남천성당 051 · 623 · 5428

주관: 마리아사제운동

부산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봉사회 참가신청 각 본당봉사자, 10월 13일(주일)까지 준비물: 미사, 묵주, 합본 (*피정전 9일기도 권고) 문의: 010 · 9399 · 5454

* 07:00 차량출발 진주역 / 마산역 / 창원만남의 광장 (회비: 1만원)

민족의 화해를 위한 평화순례

일시: 10월 26일(토)~27일(주일) 1박2일 장소: 경기도 파주일대

대상: 본당 민족화해분과위원 및 후원회원 신청: 10월 15일(화)까지 선착순 40명 참가비: 3만 원(경남 504-07-0096809 (재)마산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준비물: 미사준비, 신분증 등 문의 및 신청: 민족화해위원회 055·261·8201

▶ 수도회

제8회 성심 어울림 축제

일시: 10월 12일(토) 10:00~20:00

장소: 산청성심원 대성당

공연: 신상옥과 형제들 외

문의: 055 · 973 · 6967, 972 · 0075

제주 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 모든 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0월 17일~19일, 10월 27일~29일, 11월 3일~6일, 11월 11일~13일,

11월 24일~27일 (추자도), 12월 2일~4일

연말연시: 12월 29일~1월 1일 (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산행)

문의: 02 · 773 · 1463, 064 · 756 · 6009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0월 19일~20일, 11월 23일~24일,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따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기타

서울 삼성산성지 2박 3일 무료 치유 대피정

일시: 10월 11일(금)18:00~13일(주일)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 집

강사: 한철호 신부, 김종일 신부, 권민자 수녀 등

내용: 성시간, 매일미사, 찬양 및 강의

출발: 마산역 김안과 앞(10:30 출발)

문의: 010 · 7375 · 4600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요르단 10일 11/18, 12/3 (289만원)
- ◆ 이스라엘 9일 1/15 (299만원)
- ◈ **이태리 9일 11/7** (279만원) **1/21** 구정(299만원)
- ◈ 성모발현지 [3일 10/28(399만원),2/3 (38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진영삼성안고

대학병원급 장비보유 백내장·녹내장 전문병원

경남 김해시 진영읍 장동로 3 (경남빌딩 2층) 진영소방서 맞은편 055.724.0988 원장 임영진 (미카엘)

SMP 수맥출(출)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신세계피부비뇨기과

피부질환/ 비뇨기질환 · 수술/ 전립선암 검진 원장 김인구 베네딕토

055,757,9888~9

진주시 동진로 172 세원빌딩 3F(자유시장 사거리)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처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골롬반평신도선교사 관심자모임(해외선교)

일시: 10월 13일(주일) 14:00~17:00 대상: 만23세~만38세, 남 · 여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문의: 02·929·4841 www.columban.or.kr

2019 대구 추계성령축제

일시: 10월 19일(토) 10:00~17:0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강사: 이상재 신부, 김영철 신부 미사: 이진호(안토니오) 신부 문의: 대구성령봉사회 010 · 9045 · 0191

부산 분도 명상의 집

일시: 10월 21일(월) 09:00~16:30 장소: 분도명상의 집(참가비 2만 5천원) 지도: 박재찬(안셀모) 신부 문의: 051 · 582 · 4573, 010 · 6650 · 4574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 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월 16일(수)~12월 16일(월) 접수방법: 마산교구 사무처 055 · 249 · 7017. mssamu@hanmail.net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은영위원회 $02 \cdot 460 \cdot 7533$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 당/소식'참조

제주 성 이시돌 자연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0월 22일~25일, 11월 1일~3일, 11월 5일~8일, 11월 12일~14일, 11월 21일~24일, 12월 1일~4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제주 성 이시돌 064 · 796 · 9181

성탄 특선 이스라엘 성지순례

일시: 12월 21일(토)~27일(금) 6박7일 순례지: 나자렛, 갈릴래아, 예리고, 베들레헴, 예루살렘

문의: 02 · 723 · 3371~4, 010 · 5385 · 0565

이용 봉사자 모집

국립마산병원 음성병동에서 노인들 커트봉사자를 찾습니다. 많은 관심부탁드립니다. 문의: 김정숙 스텔라 010 · 4796 · 3039

일일낮피정

주제: "너는 이것을 믿느냐"(요한11,26) 강사: 서정혁(프란치스코)신부 (청주교구-성체 의 기적)

미사: 최재상(마티아)신부,

서정혁(프란치스코)신부 공동집전

일시: 10월 28일(월) 13:00~17:30 장소: 반송성당

문의: 010 · 9969 · 5340, 010 · 2585 · 8919

학안본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명규(요엘)

사목부회장(남성): 이동식(레미지오) 사목부회장(여성): 곽윤점(글라라)

총무: 이미호(베네딕토)

전례분과장: 손기영(소벽막달레나) 재경분과장: 안영란(글라라) 교육분과장: 홍희수(가타리나) 사회복지분과장: 김금자(유스티나) 지역분과장: 황동순(마리아)

홍보분과장: 황철환(마르코) 시설분과장: 최유찬(라파엘) 청소년분과장: 김무경(바오로)

여성분과장: 조은혜(루시아), 안영애(안젤라),

강미리 (마리아)

가정사목분과장: 권영규(엘리지오) 100주년기획분과장: 권영규(엘리지오)

2020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교사 임용경쟁시험 공고

2020학년도 학교법인 성지학원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국어(3)·지리(1)·역사(2)· 화학(1) · 음악(1) · 영어(1) · 수학(1)

응시원서 및 접수: 10월 21일(월)~25일(금) 09:00~17:00. 5일간

문의: 055 · 240 · 8884

※ 구체적인 시험일정 및 방법은 경상남도교육청 홈페이지와 성지여자고등학교 홈페이지 참조.

성령기도회	일 시	장소	주 제	강사	주 례	문의
교 구	10월 7일(월) 19:00	월남동성당	매듭을 푸시는 성모님	한기철 신부(실바노, 성바오로수도회)	한기철 신부	010 · 5072 · 5612
창원지구	10월 7일(월) 19:00	반송성당	어둠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정종천(요한, 청주교구)	안찬모 신부(이냐시오, 삼위일체수도회)	010 · 9421 · 3377
청 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묵주기도 / 20:00 기5	E회 (첫째주 : 미사, 셋째주 : 치유기도)	010 · 6667 · 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 시	장 소	문 의	비고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0월 12일(토) 14:00, 10월 13일(주일) 14:00	부산 부곡동 본원	010 · 9353 · 1773	

마산교구가톨릭문인 3인3색 신앙수필집

김정권/이준호/황광지



세 분의 작가들이 삶에서 체험한 신앙을 각자 열세 편의 글에 담았습니다. 이 글들은 성전의 스테인드글라스 창 같습니다. 김정권 작가의 열세 조각이 이루는 모습은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하는 바오로 사도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준호 작가의 열세 조각에서 약속의 땅으로 길을 떠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황광지 작가의 조각들에서는 엠마오로 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는 클레오파스와 한 동반자를 봅니다. 세 분의 작가들은 우리가 세상의 성전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 천주교마산교구 미디어국장 정연우 신부

품 격 분도여행사 순 례

www.bundotour.com

10g 26g	이탈리아, 이스라엘 순례	12일 449 만원
10g 28g	터키, 그리스 순례	13일 399 만원
11 _월 11 _일	과달루페와	40.0

출발 확정·전일정 공동경비포함 분도여행사 O2.852.8525

중남미 순례

초음파 백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쌍용까동차

마산 제일대리점 (마산역 앞)

태도건 다니엘 010,2232,1456



티볼리, 코란도, 렉스턴 스포츠 2020년형 출시·노후 경유차 지원

가족의 힘

조정자 이사벨라 ● 수필가

올해가 남편 환갑이다. 부모의 환갑 때 자녀들이 손주 서랍장을 없애버리고 모든 물건은 눈에 보이게 진열했다. 들을 안고 두 줄로 기념사진을 찍어 거실에 걸어 둔 것을 보면 최고의 가보 같아 부럽다. 우리는 두 아들이 아직 학 생이다. 지금은 흔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늦은 나이로 남편 은 서른다섯, 나는 서른셋에 결혼을 했다. 막내가 대학을 들어가고 군대를 다녀오고 직장을 가지기까지 무난하게 진행되어도 서른인데 그때 남편은 일흔이다. 갑자를 한 바 퀴 무사히 돌았다는 안도감보다 그때까지 부모로 잘 버텨 내는 것이 바람이다.

새해가 되어도 별다른 말이 없다가 환갑을 한 달 앞두고 갑자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겠다고 했다. 내 상상이 닿지 않을 만큼의 깊은 시간이 필요했을까! 부부라면 당연히 같이 맞이해야 할 특별한 날에 우리는 각자 시간을 보내 게 되었다. 생각을 바꾸면 나에게도 기회이다. 지금까지 하 고 싶은 일을 못 한 이유가 남편 때문이라면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다. 남편을 배웅하고 돌아와 바로 집 정리를 했다. 집 정리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우선 집 정리부터 시작했다. 붙박이장과

냉장고도 내가 손님인 듯 가정하고 바라보니 미련 없이 음 식물이 버려졌다. 열흘 만에 집 정리는 끝이 났다. 그 다음 은 하고 싶은 것들을 기웃거렸다. 인터넷으로 여행지만 열 심히 검색하다가 3일 만에 포기했다. 열정이 식어버렸다. 내가 하고 싶은 것에 여행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 냈다. 사람을 만나는 일도 흥이 나지 않았다. 그렇다면 내 안에서 발버둥치던 이것은 무엇이었던가!

밖에 나갈 엄두도 기분도 나지 않는 것은 나가봤자 지금 보다 더 나을 게 없다는 몸의 신호다. 반드시 나가야 한다 는 생각이 지금 이 상태를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는 더 바랄 것이 없을 만큼 잘 살고 있거나 아 니면 더는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되는 사람이다. 지금 이 상 태가 최상이며 그나마 이뤄낸 것들은 남편이라도 곁에 있 었기에 가능했다. 남편이 있어 못한 것이 아니라 남편이라 도 있어 이뤘다. 남편은 아직 덜 여문 두 아이와 여전히 남 편의 힘이 필요한 내 곁으로 당당히 돌아와 곁에 있다. 남 편이 산티아고 길을 걷는 동안 나는 내 안으로 걸었다.

시대의 할미디 스큐



말아먹다!

"저… 저, 집안 말아먹을 녀석!" "아오, 개념을 밥 말아 먹었나" "자, 소주, 맥주 잘 섞어서 폭탄 한잔 말아줘" "그만, 그 말만은 말아 주세요!" 어떤 상황인지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런데 집안이나 회사 등 어떤 조직이나 일을 말아먹는 다는 것이 정확히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국에 밥 말듯이' 말아 먹는 것인지, '김에 밥 똘똘 말아 먹듯이' 동그랗게 말아 먹는 것인지 궁금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았습니다. 〈말아-먹다: 동 사.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리다. 라는 뜻으로… ① 물기가 날아가 없어지다 ② (목이) 갈증 나다 ③ 살이 빠져 야위

다 ④ 물이 줄어 없어지다 ⑤ 재물이나 물건을 다 써서 없애다 ⑥ 감정이나 열정 등이 없다. 즉 '마 른다'에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있던 것이 말라서 또는 어떤 사유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집안 말아 먹었다.'는 것은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서 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밥 말아 먹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에 밥 말듯이 똘똘 만 것도 아닙니다. 우물에 물이 마르듯이 말라서 없어 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또 쓸데없이) 혼자 궁금해서 '말아먹다'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찾아보니. 'Roll up'이라고 합 니다. 롤 케이크처럼 김밥 말아 먹는 것을 말합니다. 좀 이상한 듯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말아 먹는다 는 것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제가 자꾸 교회 말아먹는 헛소리나 하는 것은 아 백남해 요한 보스코 신부 닌지…



교구 사회복지국장